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8.11.(금) 10:30, 김인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개해 드릴 일정이 없습니다.

장관과 차관은 모두 부내에서 통상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일 유엔 대표가 오는 17일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6년 만에... 요청했는데 성사되면 6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보자면, 북한 전문 여행사가 북한이 조만간 국경 공식 개방할 것이다, 라고 홈페이지에 밝혔는데 북한 국경 개방 동향 통일부에서 파악하신 것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앞서 드린 질문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질문 주신 북한 여행사 관련해서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도 보도를 보았고, 또 이미 방역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고, 또 그런 만큼 앞으로 이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군남댐·필승교 수위가 올라간다고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도 무단 방류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나 정부가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무단 방류에 대해서, 임진강 상류. 그것 좀 질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재중 탈북자들이 국경 개방과 함께 송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유엔에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나 또 앞으로 우리 통일부가 이 부분에 목소리를 내실 것인지, 외교부가 하겠습니까만 재중 탈북자는 통일부와 더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질문 주신 황강댐 관련해서는 현재 임진강 수위는 금일 오전 7시 기준 0.79m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이 수문을 일부 개방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6월 30일 장마철 시작 이후 북측이 계속 황강댐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문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남북 간 합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록 공유 하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련해서는 보도는 보았고, 또 통일부 차원에서는 해외 체류 탈북민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